

조선 시대 하천의 인식 동향에 관한 연구

신혜수* · 성종상** · 박혜정*** · 최사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과 박사과정***

I. 서론

하천관리 변화에 따라 사회적 요소인 시민들의 인식 및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최근 들어 시민 인식이 하천관리에 관한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결정적 인 요인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하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하천 이용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먼저 시행한 후, 하천관리 정책에 설문 조사 결과를 수립하고 있다. 하천의 정책, 관리, 이용 등에 대한 시민의 인식(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것은 향후 하천관리 정책 수립에 중요한 요소이다 (김익재 등, 2019). 또한,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사회적 변화와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이용행태도 파악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여 친수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김민선, 강형석, 2014).

청계천의 경우, 공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현장조사와 역사성 그리고 역사에서 어떻게 관리와 계획을 하였는지 파악하여 계획에 수립하였다(황지영, 2008). 하천의 위상과 하천을 이용하는 대상, 시민들의 이용행태는 역사적으로도 변화해 왔다(손용훈, 이규철, 2015).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조선 시대 하천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하였는가 등 하천과 관련된 인식 및 이용행태 조사를 통해 하천에 대한 가치를 발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II. 연구 방법

하천(河川)의 정의는 강과 시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개천의 의미는 시내보다는 크지만, 강 보다는 작은 물줄기이며, 개울의 정의는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라고 한다.

본 연구는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개천', '하천', 그리고 '개울'을 검색하여 관련 있는 내용을 발췌했다. 발췌한 내용 중 '개천', '하천', 그리고 '개울'에 대한 조선 시대 당시 행태와 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고찰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하천'은 총 1,458건이 언급된다. 그 중 국역은 384건, 원문은 1,074건이다. 국역이란 우리말(한글)로 풀어

옮겨진 글이다. 국역 384건 중 하천(河川)의 인식과 그 당시 행태와 관련된 내용인 총 31건을 시기, 출처, 인식(그 당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표현) 그리고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개천은 국역 370건, 원문 1,028건으로 총 1,398건이 언급되고 있으며, '개천'도 시기, 출처, 그 당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이용행태 및 인식과 내용으로 36건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울' 또한 조선왕조실록에 검색하면 국역 34건, 원문 19건의 총 53건이 언급되고 있다. 국역 34건 중 12건의 자료를 앞서 '하천'과 '개천'과 같이 시기, 출처, 이용행태 및 인식과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총 79건으로 발췌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태종부터 고종까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하천'의 인식 및 이용행태를 표현하는 방법 중 수해가 17건으로 제일 많이 소개되어 있다. 대부분 비가 많이 내려 하천이 범람하여 마을에 피해를 주거나 사람이나 가축들이 죽거나 농작물이 피해 보는 상황이 많아 '수해'라는 인식이 많았으며, 수해를 어떻게 복구하고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설하는(파내는) 계획이 있었으며 준설 작업을 보여지고 있다. 그다음으로 많이 인식된 표현은 하천의 물을 저장 후 활용하는 행태로 3건이 기록되었다. 특히, 문종실록에 보면 '우리나라는 하천(河川)의 제방(堤防)에 물을 저장하는 곳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18일 임자 2번째 기사).

'선왕(先王)께서 수차(水車)의 법(法)을 세워 수재(水災)나 한재(旱災)를 막는 방법을 고려...'하는 기록이 있다. '하천을 막아 농사에 쓰일 물을 저장하는 방책을 제안하고 방책을 시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7일 신해 6번째 기사). 그뿐만 아니라, 하천의 경우, 수해나 가뭄으로 인해 수해 복구의 방책이나 정비 그리고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되어 하천관리 계획 및 정비하는 행태를 기록에서 다소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개천'의 인식 및 이용행태를 표현한 방법 중에는 '준설'과 '수해'가 가장 많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하천'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충청도와 강원도에서 공해를 수리하는 행태를 보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16일 정미 2번째 기사). 또한, '개천을 파고 도로를 닦는 하천 정비사업을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8일 무오 1번째 기사). 고종실록에서는 '개천을 쳐내는 공사를 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여름 장마 이후 크고 작은 도랑들이 막혀 근방의 짐들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보였다.' 라고 기록되었으며, 그에 맞는 준설 방책과 작업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종실록 17권, 고종 17년 2월 15일 계축 1번째 기사).

앞서 '하천'과 다르게 '개천'의 기록에서는 '풍수학'의 인식 표현도 볼 수 있었다. 문종실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도읍(都邑)은 명당(明堂)의 물의 원류(源流)가 없다고 한다. 기록에서 왼쪽으로는 호조(戶曹)의 샘물과 오른쪽으로는 사문서(司閽署)의 샘물이 실제로 명당(明堂)의 원류(源流)가 되었으니, 풍수학으로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사복시를 개천(開川)가로 옮겨서 더러운 것을 흘려보내게 해서 명당(明堂)의 물을 맑게 하라'라는 기록이 있었다(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3일 병신 5번째 기사). 또한, 경종실록을 보면, '강원도에 세 차례나 큰 눈이 내려 고갯길이 막히고, 개천과 우물이 메말라서 백성들이 눈(雪)을 취하여 밥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종실록 10권, 경종 2년 12월 28일 기묘 3번째기사).

'건천화'와 비슷한 인식으로 '가뭄'의 기록도 있다. 영조실록을 보면, '가뭄 및 건천화'의 기록도 있다. '몇 달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았으며, 길가에 있는 시내와 개천이 모두 말랐으며, 가뭄이 심하여 기우제를 거행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영조실록 79권, 영조 29년 4월 26일 신해 1번째 기사).

'개울'은 '하천'과 '개천'과 다르게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장 적게 기록되어져 있으며, 기록된 내용 중에서도 단 12건만이 '개울'에 관한 인식과 행태를 표현한 내용으로 기록돼 있다. '면동이 틀 무렵 어가가 출발하여 심천(深川)에서 주정(晝停)하고 사시(巳時) 정각에 박연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동구에 이르러서는 옛길을 버리고 골짜기를 뚫어 큰길을 내고 개울에는 다리를 놓아 길을 뚫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종실과 재상들에게 술을 내렸으며, 매 사냥을 한 기록을 보아 개울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며 잠시 머무르고 체류하였다'라는 기록을 보아 체류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용행태를 보였다(중종실록 80권,

중종 30년 9월 17일 을해 4번째 기사). '용산 강에서 기우제 지낼 장소에 대해 김백순이 아뢰다'라고 기록된 거로 보아 개울을 제사의 장소로 인식되어 기우제를 지내는 이용행태를 보였다(중종실록 93권, 중종 35년 5월 15일 병오 2번째기사). 앞서 '하천' 및 '개천'과 다른 인식 표현으로는 관계(灌溉)가 인조실록에서 '큰 개울을 파서 백성들의 논과 밭에 관개하라는 계획과 정책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었다(인조실록 21권, 인조 7년 11월 4일 을유 1번째 기사). 그뿐만 아니라, '명당의 물을 맑게 해야 하므로 도성 안의 크고 작은 개울과 도랑의 오물을 제거하라는 어명이 있어 도성 안에 크고 작은 개울과 마을의 도랑을 소제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정조실록 40권, 정조 18년 7월 20일 을사 6번째 기사).

I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조선 시대 하천이 수해·가뭄 등 재난의 대상으로 관리와 정비가 필요한 공간이자 풍류 및 체류 공간, 신성한 공간 등으로 인식 및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역사적 기록연구를 통해 그 시대의 하천 인식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당시 하천의 관리 및 계획, 하천에 대한 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 및 이용행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조선 시대에 하천의 사회적 변화를 알 수 있듯이, 본 연구 및 후속 연구를 통해 시대별 하천의 사회적 기능과 그 시대의 인식과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조선 시대부터 현재까지 하천이 어떻게 인식되어 이용되고 있는 사회적 기능을 인지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2. 김익재 등(2019) 시민인식조사 기반의 하천관리 정책 방향. 한국수자원학회, pp 40-41.
3. 손용훈, 이규철(2015) 좋은 도시를 위한 하천의 위상과 기능. 환경농촌 55: 61-67.
4. 조선왕조실록.
5. 황지영(2008) 서울시 청계천 이용자 행태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